



3면

정 총리, 'I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 '특수분' 설치 지시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중기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본격화

도, 돌음·도약·선도기업
대상 지원사업 통합 공모
참여기업 신청 내달 5~9일

전북도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중 '2021년도 전북도 돌음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는 ▲(1단계)돌음기업 ▲(2단계)도약기업 ▲(3단계)선도기업 ▲(4단계)스타기업 ▲(5단계)글로벌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돌음기업 육성사업·도약기업 육성사업·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액 순도비 지원사업이다.

도는 '기업성장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은 연계해 기술력, 혁신역량 및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먼저, 돌음기업 육성사업은 전북도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첫 단계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으로 발돋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전북도에 분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경영역량, 혁신인증활동,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와 기업환경, 기술·경영상태 등을 확인하는 2차 현장심사를 거쳐 CEO 인터뷰를 통한 경영진의 사업 이해도,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3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해 최종 2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도약기업 육성사업은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성장촉진 지원으로 선도기업 후보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

단계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ICT, 농·생명 업종은 1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전북도에 분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접수는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http://md.jtp.or.kr)'으로 하면 되고, 경영역량, 연구역량, 기업 혁신활동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와 기업환경, 기술역량, 수출역량, 참여의지 등을 확인하는 2차 현장심사, 선정기업 CEO의 경영전략 발표를 통한 경영혁신 의지, 기업 성장전략 등을 평가하는 3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마케팅 지원, 기술·경영혁신 바꾸어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단계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단, ICT, 농·생명 업종은 25억원 이상)인 전북도에 분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하는 전북도 지역산업 제조업분야 기업이다.

선정방식은 온라인 접수를 통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기업 환경과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는 2차 현장평가, 선정기업 CEO의 경영전략 발표 및 인터뷰로 혁신기반, 혁신활동, 기술경영 등을 확인하는 3차 인터뷰 심사까지 마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025년까지 5년동안 기술개발,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마케팅과 맞춤형 컨설팅 뿐만 아니라, 인력채용 플랫폼, 사내창업, 리더 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돌음·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기간은 8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 /유호상 기자

“세계 여성의 날 서노송예술촌 방문, 의미 크다”

민주 홍영표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과 간담회
여성인권 보호 상징적 공간 탈바꿈된 현장 확인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홍영표 의원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제113회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거듭난 전주 서노송예술촌을 찾아 여성인권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홍영표 의원은 8일 서노송예술촌 내 성평등전주에서 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조선희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 김미선 여성자활지원센터 Doing 소장, 임미정 (사)전주여성 의전화 대표, 한선미 (사)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장, 김란 전주여성

단체협의회장, 강영이 전주시새마을 부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과거 여성인권 착취의 공간에서 여성인권 보호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신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노송예술촌을 찾아 곳곳을 둘러봤다.

간담회에서는 서노송예술촌 정비 과정과 문화재생산업 추진현황, 탈(脫)성매매 여성 피해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지역 성평등 활동가들과 전주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직업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여성인권

장에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인권회복과 문화예술촌의 공간으로 탈바꿈된 서노송예술촌을 방문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더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여성인권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시장은 “공권력을 통한 강제철거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술의 힘으로 변화시킨 독보적인 공간이 바로 서노송예술촌”이라며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성운동의 상징공간이자 문화예술의 힘을 확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내부성장 기반 확충이 전북 발전의 열쇠”

우원식 민주균형발전특위위원장
특위 전북추진본부 토론회서

지역현안 해결 등도 강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8일 전북을 찾아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기능연계형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특위 전북추진본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해 전북의 발전 전략과 전북형 뉴딜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우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해답은 지역 발전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며 ▲제3금융중심지지정을 통한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선박블록 물량 우선 배정 검토를 약속했다.

아울러, ▲새롭게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 ‘5대 개발목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및 새만금과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 ▲공공의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등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우원식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장과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김수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특위 전북추진본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으로 전북지역의 강점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동력을 키우는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현안 해결과 더불어 “전북형 뉴딜 전략 및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계형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위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

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IP에서 밝힌 전북의 독립적인 강소형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지역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소멸 위

기에 놓인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에서 수립하는 방향을 잘 조정해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지역에서 세운 계획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후에는 집단 안 발령이 확인된 익산의 잠점마을 찾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진안군은 용담호의 많은 물보다, 맑은 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130만 전북도민이 마시는 용담호 맑은 물
진안군민의 노력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전북도민 생명수